

##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 공감정확성 및 성차를 중심으로

윤 황<sup>†</sup>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한 가지는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손상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이 오히려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 동안의 정신병질 연구가 교정 및 법의학 장면에 연루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탓에, 정신병질의 성차에 따른 특성은 물론, 여성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그 성별 차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LSRP 점수를 토대로 남녀 대학생 46명으로 이루어진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남녀 대학생 54명으로 이루어진 일반집단을 구성한 후, 실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일반집단이 정신병질 성향집단보다,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공감정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감정확성에 관한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함께,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공감, 공감정확성, 인지적 공감, 정신병질, 여성 정신병질

---

<sup>†</sup> 교신저자 : 윤 황,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E-mail : andsalt@hanmail.net

심리학 연구에 공감을 처음 소개한 연구자는 Lipps(1907)로 알려져 있는데, Lipps는 공감을 타인과 동일한 정서상태를 공유하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감은 개인 내부의 현상임과 동시에 복잡다단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Lipps의 정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마음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Billing, 1991; Hakansson & Montgomery, 2003; Potter & Wetherell, 1987). 공감의 개념적 복잡성은 동정과 비교해 보면 보다 쉽게 드러난다. 공감(empathy)과 동정(sympathy)은 타인의 안위를 염려하는 이타적 정서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연구자들조차 흔히 혼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둘은 엄연히 구분되는 정서이다(Eisenberg, 2000; Gerdes, 2011; Wispé, 1986). 공감은 그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 일련의 발달 과정을 거쳐 왔는데(Eisenberg & Strayer, 1987), 공감주체와 공감객체가 경험하는 정서의 일치성 여부 및 친사회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예: Barnett & Mann, 2013; Hanson, 2003; Jolliffe & Farrington, 2006). 그러나 공감이 공감객체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공감주체의 인식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서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예: 조성호, 이희경, 2008; Barnett & Mann, 2013; Eisenberg, 2000; Marshall & Marshall, 2011). 이에 반해 동정은 인식과정 및 정서경험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정 주체가 경험하는 이타적 정서상태 또는 이타적 행위를 일컫는다(Breithaupt, 2012; Chismar, 1988; Wispé, 1986). 즉, 공감은 공감주체의 인식과정과 정서반응의 적절성이 강조되는 개념인 반면, 동정은 동정주체가 경험하는 정서의 이타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Eisenberg, 2000),

유사해 보이는 두 개념 간의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충분히 견딜만한 상황이나 곤란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행위자로서 스스로를 동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관찰자가 이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동정심을 표현한다면 관찰자의 정서가 비록 이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행위자로서의 우리는 이를 공감적으로 지각하지 않는다. 관찰자가 행위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위자로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과 관찰자가 경험하는 정서가 적절히 상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감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서경험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Ickes, 1993; Hoffman, 1987; Marshall, Hudson, Jones, & Fernandez, 1995).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 또는 그 과정을 일컫는다(이석호, 이영호, 2014). 전통적으로 인지발달론자들(예: Hoffman, 1991; Kohlberg, 1987; Piaget, 1965)이 강조해온 역할취하기(role taking)나 Davis가 작성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Davis, 1980, 1983)의 관점취하기(perspective taking)는 모두 인지적 공감을 반영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조성호, 이희경, 2008; Barnett & Mann, 2013). 또한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정신상태를 표상하는 능력인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 Saxe & Baron-Cohen, 2007)과도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이석호, 이영호, 2014; Goldstein & Winner, 2012; Oakley, Brewer, Bird, & Catmur, 2016), 이로 인해 인지적 공감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마음이론의 측정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예: Blair, Sellars, Strickland, Clark,

Williams, Smith, & Jones, 2008; Dolan & Fullam, 2004; Richell, Mitchell, Newman, Leonard, Baron-Cohen, & Blair, 2003). 마음이론은 만 4세 경에 처음 나타나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Baron-Cohen, Leslie, & Frith, 1985; Goldstein & Winner, 2012; Kerr, 2008), 인지적 성숙도에 따른 변량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다(Baron-Cohen, Jolliffe, Mortimore, & Robertson, 1997; Dziobek, Fleck, Kalbe, Rogers, Hassenstab, Brand, Kessler, Woike, Wolf, & Convit, 2006). 이들 측정도구들은 주로 이야기를 통해 맥락을 제공하고 이야기 속 인물의 신념이나 정신상태를 추론하는 이야기 이해 과제들(story comprehension task)로 구성되어 있다(Dziobek et al., 2006). 흔히 셸리와 앤의 이야기로 알려진 고전적 틀린믿음 과제(false belief task; Wimmer & Perner, 1983) 및 타인의 관찰된 행동과 마음의 경험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고차적 추론과제들(예: faux-pas; Baron-Cohen, O'Riordan, Stone, Jones, & Plaisted, 1999; strange story task; Happé, 1994)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야기 이해 과제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해 수검자의 마음이론을 측정하고 있으나, 그 맥락의 내용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과제 성취도와 언어성 지능 간의 유의한 상관을 근거로 순전한 마음이론의 추정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Kaland, Moller-Nielsen, Callesen, Mortensen, Gottlieb, & Smith, 2002). 마음이론의 또 다른 측정 패러다임인 눈을 통한 마음읽기 과제(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RMET; Baron-Cohen et al., 1997)는 이야기 이해 과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론을 측정한다. RMET에서는 인물의 눈 영역 사진이 제시되는데, 수검자는 사진만을 활용하여 사진 속 인

물의 정서경험 및 정신상태를 추론하게 된다. RMET는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이 제공되지 않는 검사인 관계로 그 측정치가 마음이론보다는 정서인식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Oakley et al., 2016), 성별 및 문화·성격·정신장애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Stone, Baron-Cohen, Calder, Keane, & Young, 2003). 그러나 상기한 마음이론 측정방법들이 인지적 공감의 측정도구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얼마나 타당한 추정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인지적 공감은 공감주체가 공감객체와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지는 입체적인 마음의 현상이이기 때문이다(Håkansson & Montgomery, 2003). 따라서 이야기 이해 과제나 RMET와 같이, 대인관계 및 맥락이 배제된 채 고정된 모의상황에서 공감주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측정방법은 인지적 공감의 복잡성을 담아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이석호, 이영호, 2014; Brook & Kosson, 2013).

일찍이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예: Blackburn, 1993; Ellis, 1982; Fallington, 1998). 이는 주로 임상적 관찰에 근거해 왔는데 정신병질자들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이나 공격성이 타인의 관점취하기 또는 역할취하기 기술의 결함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 Blair와 그의 동료들은 슬픔·공포 등 타인이 경험하는 특정 정서에 대하여 정신병질자들이 일관된 정서인식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예: Blair, Budhani, Colledge, & Scott, 2004; 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Stevens, Charman, & Blair, 2001),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가해자들로 부터 체계적인 인지적 왜곡 및 가해 지지적 신념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다(예: Hanson & Scott, 1995; Keenan & Ward, 2000; Mann, Webster, Wakeling, & Marshall, 2007). 한편, 최근의 공감모델들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경험으로서의 공감(이하, 정서적 공감)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감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는데(예: Barnett & Mann, 2013; Blair, 2007; Marshall et al., 1995; Marshall & Marshall, 201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들 모두가 인지적 공감이 정서적 공감에 선행함을 가정하고 있다<sup>1)</sup>. 이 이론들에 따르면, 정신병질자들은 특정 정서인식 결함이나 가해 지지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지적 공감 과정에 해당되는 1단계 또는 2단계 과정의 결함을 초래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감과정을 작동시키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Marshall et al., 1995). 그러나 정신병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일련의 마음이론 연구들은 이러한 공감모델에 반론을 제기한다(Barnett & Mann, 2013; Ward & Keenan, 1999). 즉, 고차적 추론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이해 과제에서 정신병질자들의 수행이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반복 확인된 바 있으며(Blair, Sellars, Strickland, Clark, Williams, Smith & Jones, 1996; Widom, 1976), Richell과 그의 동료들(2003)이 수행한 RMET 연구에서도

1) 그림 1은 Marshall 등(1995)이 제안한 공감의 과정 모델로서 인지에서 정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감 과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Blair (2007), Barnett과 Mann(2013), Hanson과 Scott(1995) 등이 각자의 모델을 통해 공감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절차와 정교화하고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구성 요소와 절차는 Marshall 등(1995)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정신병질자들의 마음이론 손상 가능성은 시사되지 않았다. 심지어 정신병질을 넘어서 반사회적 성향군으로 피험자 집단을 확대했을 때조차 반사회적 행동과 마음이론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lair, 2007).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은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통제집단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화이론가들은 정신병질은 병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생존전략으로써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비정신병질자들보다 오히려 우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Book & Quinsey, 2004; Buss, 2009; Glenn, Kurzban, & Raine, 2011). 즉, 정신병질은 동종 간 생존경쟁에서 비롯된 이른바 ‘어둠의 생존전략’으로서(Buss, 2009),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Brook & Kosson, 2013).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우수하다는 또 다른 임상적 관찰들이 존재하며(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 & Ramnath, 2004), 최근 들어 정신병질에 관한 커뮤니티 샘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성공적 정신병질에<sup>2)</sup>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같은 진화이론가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Glenn et al., 2011; Lykken, 1995; 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Youn & Lee, 2016). 따라서 상기한 공감모델에 따르면, 정신병질자들은 인지적 공감 능력에 결함이 없거나 오

2) 성공적 정신병질(successful psychopathy)은 반사회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거나, 삶의 특정 영역에서 성취를 거두는데 성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신병질 특성을 갖고 있는 개인들로 정의 된다(Lykken, 1995; Stevens et al., 2012).

히려 우수한 사람들로서, 정서적 공감으로 진행되는 3단계 이후의 과정에 결함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 진다(고선영, 이수정, 2004).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다. 상기한 진화이론가들의 주장은 정신병질 집단과 통제집단의 마음이론이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경험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Blair, 2007; Blair et al., 1996; Richell et al., 2003), 이들 연구들에 활용된 마음이론의 측정치가 인지적 공감의 추정치로서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야기 이해 과제나 RMET를 통한 마음이론의 측정은 지능 수준에 따른 혼입 가능성 및 낮은 생태학적 타당도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석호, 이영호, 2014; Brook & Kosson, 2013; Dziobek et al., 2006).

인지적 공감의 측정에 있어서 기존의 마음이론 측정 방법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서는 비디오를 활용한 측정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예: Movie for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Dziobek et al., 2006; Awkward Moment Test: Heavey, Phillips, Baron-Cohen, & Rutter, 2000). 이러한 방법들은 영화 또는 영상광고의 일부를 편집한 후 피험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정신상태를 추론케 하는데, 그 추론과정엔 등장인물의 얼굴표정·목소리·언어적 대화 내용·맥락 등이 모두 활용된다. 기존의 마음이론 측정 방법들이 인물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특정적·구체적 측면만을 활용하고 있다면, 비디오를 활용한 마음이론 측정은 각각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일

종의 오케스트라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마음이론이 작동하는 일상 장면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높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갖는다(Hall, & Mast, 2007; Roeyers, Buysse, Ponnet, & Pichal, 2001). 특히, Ickes(1993, 1997)가 고안한 독창적인 실험패러다임인 공감정확성(Empathic Accuracy)은 가장 잘 타당화 된 마음이론 측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rook & Kosson, 2013). 영화나 영상광고를 활용한 측정방법은 영상속 등장인물이 공감적 추론의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 정신상태를 경험하는 가상의 인물들이다. 이에 반해, 공감정확성은 실제 인물을 공감적 추론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즉, 이 실험 패러다임에서는 두 명의 피험자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한 후 각 피험자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시 자신의 사고 및 감정을 기록하게 한다. 이어서, 비디오 테이프를 상대와 바꿔 보여주면서 피험자들에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추론하게 하여 그 일치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마음이론을 측정하게 된다(Ickes & Tooke, 1988; Ickes, Bissonnette, Garcia, & Stinson, 1990; Stinson & Ickes, 1992). 따라서 공감정확성은 실제 대인관계 장면을 실험자극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지적 공감에 관한 연구방법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볼 수 있다(Ickes, 1997). Ickes(1993, 1997)의 공감정확성은 자폐·아스퍼거·우울·성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를 가진 피험자들에게 적용되어 왔는데(예: 이석호, 이영호, 2014; Dugosh, 1998; Flury & Ickes, 2006; Ick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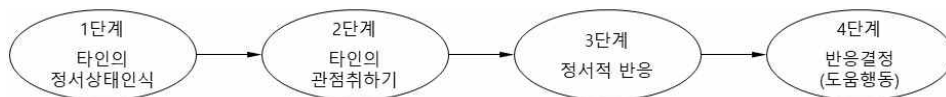


그림 1. Marshall의 공감과정 모델(1995)

Dugosh, Simpson, & Wilson, 2003), 정신병질자들을 대상으로는 Brook과 Kosson(2013)에 의해 유일하게 수행된 바 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 재소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에서는 정신병질 재소자 집단이 비정신병질 재소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저조한 공감 정확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몇 가지 논쟁의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남성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이 실시됨으로써 연구결과를 여성에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공감정확성 패러다임은 본래 그 특유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인물의 사고와 감정을 개방형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Ickes, 1993, 1997).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개방형 기술 대신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지는 사고추론을 제외하고 감정추론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생태학적 타당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상기한 한계의 보완을 통해서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인지적 공감의 성차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다는 것이다(Connellan, Baron-Cohen, Wheelwright, Bartki, & Ahluwalia, 2000; Ounsted & Taylor, 1972). 이같은 견해는 Baron-Cohen의 공감하기(empathizing)-체계화하기(systemizing)에 관한 성차이론을 통해 이론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Baron-Cohen, Knickmeyer, & Belmonte, 2005), 여기서의 공감하기란 타인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하며, 체계화하기는 현상에 작동하는 원리를 탐색하고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을 일컫는다(Baron-Cohen, Richler, Bisarya, Gurunathan, & Wheelwright, 2003; Baron-Cohen, Wheelwright, Skinner, Martin, &

Clubley, 2001). Baron-Cohen과 그의 동료들(2005)은 인지 양식으로서 상기한 두 기제는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는데, 남녀간 성 호르몬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신경생리학적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은 공감하기를, 남성은 체계화하기를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고 설명한다.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Davis, 1980, 1983), EQ(Empathy Quotient;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등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활용하여 공감능력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은 여성의 공감능력이 남성의 것보다 우수함을 일관되게 보고함으로써 Baron-Cohen 등(2005)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예: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Davis, 1983; Eisenberg & Lennon, 1983; Mehrabian, Young & Sato, 1988; Rueckert & Naybar, 2008). 또한, 공감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이 갖는 혼입 가능성으로 인해 연구결과 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으나(Eisenberg & Lennon, 1983), 공감정확성을 활용한 인지적 공감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 역시 Baron-Cohen 등(2005)의 주장을 지지한다. 즉, 공감정확성의 성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여성과 남성의 공감정확성이 차이가 없거나 여성의 공감정확성이 남성의 것보다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Graham & Ickes, 1997; Ickes, Gesn, & Graham, 2000). 따라서 상기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인지적 공감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전통적 견해는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지적 공감능력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다. Ickes 등(2000)은 공감정확성의 성차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모아 메타분석을 한 바 있는데, 여성의 공감정확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

실험참여자들에게 공감정확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묻고 있음을 발견하고<sup>3)</sup>, 이를 통해 여성의 공감정확성이 우수한 이유를 여성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즉, 자신의 공감능력이 평가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상황에서, 공감 지향적인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감적으로 정확하고자 하는 동기를 자극하게 되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고양된 동기수준이 여성들의 공감정확성 점수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여성의 우수한 인지적 공감이 성별 자체에서 비롯된 능력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다는 설명이 된다. Klein과 Hodges(2001)는 실험참여자들에게 공감정확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금전적 유인가로 동기수준을 자극하는 조건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조건을 각기 제시하고 그 결과의 성차를 비교함으로써 Ickes 등(2000)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실시된 Laurent와 Hodge(2009)의 공감정확성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게 자기평가를 요구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극할 수 있는 실험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공감정확성이 우수함을 보고한 바 있다. 만일, Laurent와 Hodge(2009)의 연구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른 대안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기평거나 기타 성역할 고정관념 자극 등의 외재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공감정확성의 성차가 발생하는지 반복 검증될 필요가 있겠다.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상반된 경쟁 가설이 존재한다. 만일,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비정신병질자들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또는 열등하다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신병질 특성을 함께 공유하는 여성 정신병질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 질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아는 한 여성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다룬 국내외 경험적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바 없다. 이는 정신병질 연구가 대부분 교정 및 법의학 장면에서 이루어진 남성 표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탓에 여성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Falkenbach, Reinhad, & Larson, 2017; Pechorro, Poiarés, Vieira, Marôco, Nunes, & Jesus, 2014; Watts, Donahue, Lilienfeld, & Lutzma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의 측정 방법들 중 생태학적 타당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각광받고 있는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정신병질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두 경쟁가설을 비교·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지적 공감능력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이 대안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 통제된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감정확성에 있어서 정신병질 여부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함으

3) 공감정확성 실험에서 실험참여자들은 동영상 속 인물의 사고와 감정을 추론한 후 답안지에 기술하게 된다. 이때 활용되는 답안지는 한차례 개량된 바 있는데, 개량된 답안지를 활용한 연구들은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추론해서 기술하는 문항별 빈칸 외에도 작은 비교란을 만들어 “당신의 추론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실험참여자가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고 있다. Ickes 등(2000)은 여성의 공감정확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이 모두 개량된 답안지를 활용했다고 소개한다.

로써 정신병질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설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이 안배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을 구성한 후, 공감정확성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아래의 연구문제들을 풀어나갔다.

**연구문제 1.**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인지적 공감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인지적 공감능력의 성별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3.**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성별 조건에 따른 인지적 공감능력을 확인한다.

### 연구방법

####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C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32명을 대상으로 Levenson 등(1995)의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교수자들의 협조를 얻어 수업시간에 이루어졌

는데, 무성의하게 작성된 9부를 제외하고 총 62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정신병질 성향집단은 LSRP 총점이 상위 15% 이내에 포함되는 설문 응답자들 중 실험 참여에 동의한 남녀 대학생 46명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집단은 LSRP 총점이 상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설문 응답자들 중 실험참가에 동의한 남녀 대학생 54명으로 구성했는데, 두 집단 모두 실험참여를 요청하기에 앞서 성별 안배가 고려되었다.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LSRP 점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는 비재소자들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제작한 26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LSRP는 일차성 정신병질 요인과 이차성 정신병질 요인의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기만경향, 권모술수, 후회의 결여, 냉담성 등과 관련되며, 이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불안 민감

표 1. 정신병질성향 집단과 일반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정신병질성향 집단 (n=46)		일반 집단 (n=54)		t
	M	SD	M	SD	
연령	21.83	2.32	21.54	1.80	0.701
성별	남=24		남=23		
	녀=22		녀=31		
LSRP 점수	68.52	3.87	45.11	7.23	19.674***

\*\*\*  $p < .001$ .



성, 충동성, 인내심 결여, 장기적 목표의 결여 등을 반영한다(Lee & Salekin, 2010; Levenson et al., 1995).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LSRP의 신뢰도와 타당도, 요인구조의 적합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Ross, Moltó, Poy, Segarra, Pastor, & Montañés, 2007),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공정식(2007)이 번안하여 국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2, 일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80, 이차성 정신병질 요인은 .69로 나타났다.

#### 실험절차

공감정확성 실험은 비구조화된 이자 상호작용 패러다임(unstructured dyadic interaction paradigm)과 표준자극 패러다임(standard stimulus paradigm)으로 구분된다(Mast & Ickes, 2007). 이중 비구조화된 이자 상호작용 패러다임은 앞서 소개한 방식으로 두 명의 실험참여자가 자유롭게 대화한 후 대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추론한 후 개방형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Ickes & Tooke, 1988; Ickes, Bissonnette, Garcia, & Stinson, 1990; Stinson & Ickes, 1992). 반면, 표준자극 패러다임은 두 명의 실험참여자가 자유롭게 대화하는 장면을 녹화하여 표준자극을 제작한 후, 또 다른 실험참여자가 표준자극 속 인물들의 사고와 감정을 추론한 후 개방형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Gesn & Ickes, 1999; Marangoni, Garcia, Ickes, & Teng, 1995; Mast, Hall, & Ickes, 2006).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두 방식 중 실험 조건에 따른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자극 패러다임을 사용하였다<sup>4)</sup>.

4) Flury와 Ickes(2006)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와 일

#### 표준자극 제작 과정

본 실험에 사용할 표준자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촬영에 협조를 구한 2명의 남자 대학생 실험참여자들에게 20분간 대화를 나눌 것을 주문하고 퇴실하였는데, 이때부터 두 실험참여자 간의 대화는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되었다. 본래 Ickes의 실험 패러다임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주지 않고 대화를 하게 한다. 그러나 서양인들과 다른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상 대화의 주제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발생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자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로서 서로의 힘든 일이나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을 주문하였다. 대화가 끝난 후 두 실험참여자는 녹화된 자료를 재생하면서 대화 도중 순간순간 느꼈던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재생시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정답지'를 작성하였다. 두 실험참여자가 각각 7개씩의 시간대를 정하여 정답을 작성한 바, 모두 14문항의 정답지가 작성되었는데, 각 문

반인 쌍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이자 상호작용 패러다임을 적용한 바 있는데, 실험결과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공감정확성이 일반인의 공감정확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실험결과는 짝짓기 조건에 따른 상대적인 난이도의 차이에 의한 것일 뿐, 실제 공감정확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추론보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인의 추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 간 비교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짝짓기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이도 차이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자극 패러다임을 적용하였다.

항마다 사고와 감정을 따로 기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수검자가 풀어야 할 문제는 총 28문항이 된다. 촬영은 디지털 캠코더 3대가 활용되었는데, 2대로는 대화 중인 두 실험참여자 각각의 얼굴을 동시에 담았으며, 나머지 1대는 두 실험참여자가 모두 포함된 전경을 담았다. 촬영된 3개의 녹화자료는 편집과정을 거쳐 12분 30초 분량의 표준자극 동영상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표준자극 동영상은 '서로의 힘든 일이나 걱정거리'라는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 외에는 어떠한 통제나 연출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다. 동영상은 한 실험참여자가 자신의 가정사 및 학교생활에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또 다른 실험참여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교내 소모임을 소개해 주는 등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본실험 과정

본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실험은 실험/통제집단 여부 및 성별 여부와 관계없이 실험참여자들의 개인별 일정에 맞춰 열흘 동안 진행되었다. 실험참여자들에게는 본래의 연구목적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관한 개인차 연구'라고만 소개한 바, 실험참여자들은 자신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과제수행 방법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모니터를 통해 표준자극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게 하였다. 이후,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재생시간을 찾아 제시청하면서 각 시간대마다 느꼈던 인물들의 사고와 감정을 추론하여 '1~2줄 정도로 답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 실험참여자들이 작성한 답안지엔 각

문항마다 제시청할 재생시간과 함께 사고와 감정을 각기 분리 작성할 수 있는 빈칸만 제시되어 있을 뿐, 본인의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묻는 자기평가 질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와 실험 보조자는 피험자 모집부터 실험절차 진행까지 실험참여자들의 성역할 태도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언어적·비언어적 언급도 최대한 삼갔다. 표본자극 첫 시청부터 답안지 작성을 마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실험참여자들마다 다소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 4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실험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 실험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실험참가비가 지급되었다.

#### 평정과정

본실험을 모두 마치고 수합된 공감정확성 답안지는 각각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인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2명에 의해 교차평정되었다. 답안지를 작성한 실험참여자의 성별 및 정신병질 성향 여부는 맹검 처리하여 평정자들은 실험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기술된 내용이 '정답'과 일치한다고 판단될 경우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불일치한다고 판단될 때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실험참여자가 전체 14개 문항에서 '사고'와 '감정'을 모두 정확히 추론해서 기술했을 경우엔 합계 점수는 28점으로 처리된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사고추론 .817, 감정추론 .841, 사고 및 감정추론 합계 .95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성별에 따른 공감정확성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신병질 성향 조건 및 성별 조건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ANOVA)하고 *t*-검증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 과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성별에 따른 공감정확성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공감정확성에 관한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의 집단간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2 이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감정확성-사고추론에서는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6)=7.38, p<.01$ ;  $F(1, 96)=12.67, p<.001$ . 즉, 일반집단이 정신병질 성향집단보다,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공감정확성-사고추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8)=2.94, p<.01$ ;  $t(98)=3.74, p<.001$ . 또한,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6)=7.80, p<.01$ . 즉, 정신병질 성향 집단에서는 남녀간 공감정확성-사고추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44)=0.47, m.$ , 일반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정확성-사고추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2)=4.74, p<.001$ . 공감정확성-감정추론에서도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6)=23.67, p<.001$ ;  $F(1, 96)=9.91, p<.01$ . 즉, 일반집단이 정신병질 성향집단보다,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공감정확성-감정추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8)=5.00, p<.001$ ;  $t(98)=3.35, p<.001$ . 그러나 공감정확성-감정추론에서는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96)=2.28, m.$  끝으

표 2.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의 공감정확성 성별 평균과 표준편차

	정신병질 성향집단(n=46)			일반집단(n=54)			합계(n=100)		
	남(n=24)	여(n=22)	<i>t</i>	남(n=23)	여(n=31)	<i>t</i>	남(n=46)	여(n=54)	<i>t</i>
공감정확성-사고추론	5.85(1.70)	6.11(2.03)	0.47	5.83(1.56)	8.13(1.91)	4.74***	5.84(1.62)	7.29(2.18)	3.74***
	5.98(1.85)			7.15(2.09)					2.94***
공감정확성-감정추론	4.81(1.67)	5.48(2.39)	1.01	6.17(2.08)	8.06(1.91)	3.47***	5.48(1.98)	6.99(2.46)	3.35***
	5.13(2.05)			7.26(2.18)					5.00***
공감정확성-추론합계	10.67(3.03)	11.59(4.03)	0.88	12.00(3.06)	16.19(3.43)	4.64***	11.32(3.09)	14.28(4.31)	3.91***
	11.11(3.53)			14.41(3.87)					4.42***

\*\*\**p*<.001.

주. ( ) 안은 표준편차

표 3. 정신병질 성향 및 성별의 공감정확성 이원변량분석(2×2)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공감정확성 -사고추론	정신병질성향	24.25	1	24.25	7.38**
	성별	40.32	1	40.32	12.67***
	집단×성별	25.64	1	25.64	7.80**
	오차	315.49	96	3.29	
공감정확성 -감정추론	정신병질성향	95.74	1	95.74	23.67***
	성별	40.10	1	40.10	9.91**
	집단×성별	9.23	1	9.23	2.28
	오차	388.32	96	4.05	
공감정확성 -추론합계	정신병질성향	216.36	1	216.36	18.67***
	성별	160.83	1	160.83	13.88***
	집단×성별	65.63	1	65.63	5.66*
	오차	1112.49	96	11.59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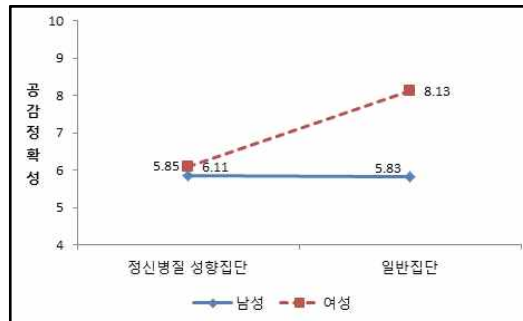


그림 2. 정신병질 성향 및 성별의 공감정확성-사고추론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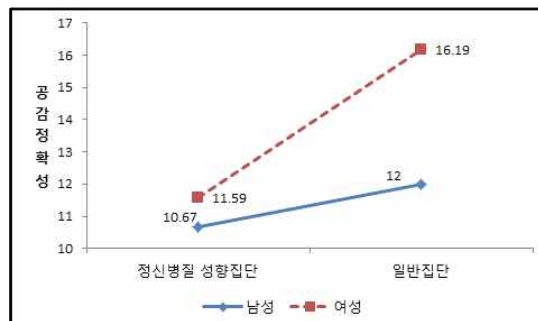


그림 3. 정신병질 성향 및 성별의 공감정확성-추론합계 상호작용 효과

로, 공감정확성-추론 합계 점수에서는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6)=18.67, p<.001$ ;  $F(1, 96)=13.88, p<.001$ . 즉, 일반집단이 정신병질 성향집단보다, 여성집단이 남성집단보다 공감정확성-추론 합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98)=4.42, p<.001$ ;  $t(98)=3.91, p<.001$ . 또한,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신병질 성향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F(1, 96)=5.66, p<.05$ . 즉, 정신병질 성향 집단에서는 남녀간 공감정확성-추론합계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t(44)=0.88, ns$ , 일반집단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정확성-추론 합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2)=4.64, p<.001$ .

## 논 의

본 연구는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이해를 확장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성별이 안배된 정신병질 성향집단과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을 실시하고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기존의 경쟁가설 및 성별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질 성향 여부에 따른 집단 주효과를 통해 일반집단의 공감정확성이 정신병질 성향집단의 공감정확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감정확성-사고추론, 감정추론, 추론 합계 점수에서 모두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저조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

병질을 진화적 이득에 따라 발달된 생존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진화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동안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 온 까닭은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 측정방법들 간의 변량이 크고, 측정방법들에 대한 생태학적 타당도가 줄곧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Brook & Kosson, 2013; Richell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이라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측정방법을 충실히 적용한 바, 본 연구결과는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일반인들에 비해 저조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집단 주효과를 통해 여성집단의 공감정확성이 남성집단의 공감정확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우수함을 시사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게 공감정확성과 관련한 자기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등 실험과정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극할 수 있는 혼입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했었다. Ickes 등(2000)의 주장대로라면, 본 연구에서는 여성집단의 수행기를 고양시킬만한 혼입 요소가 통제되었으므로 공감정확성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공감정확성의 성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정확성이 우수한 이유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역할 태도, 동기 수준 이외의 다른 대안적 설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포함하여 공감정확성의 성차를 다룬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성차

의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감정확성에 작용하는 여러 요소들을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하여 비교한 Hall과 Mast(2007)의 연구는 주목해 볼만하다. 이들은 표준자극 패러다임에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한 조건이 다양한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한 조건들보다 공감정확성이 우수했다고 보고하면서 공감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언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Gesn & Ickes, 1999; Hall & Mast, 2007). 이는 곧 두 사람이 만나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가 공감정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 추후 연구를 통해 이에 따른 성별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공감정확성 사고추론 점수와 추론합계 점수에서 정신병질 성향 여부 및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일반집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정확성이 우수했으나, 정신병질 성향집단에서는 공감정확성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집단의 여성이 일반집단의 남성보다 우수한 공감정확성을 보인 것은 앞서 논의한 공감정확성의 성차를 반영한 것이라면, 정신병질 성향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감정확성이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공감정확성에서 기대되는 성차가 정신병질 성향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신병질의 성차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요인구조의 유사성을 보고하는 한편(예: Miller, Watts, & Jones, 2011; Poy, Segarra, Esteller, López & Moltó, 2014), 남성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정서성 및 반사회적 성격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높은 불안과 정서

적 불안정성, 연극적 성격특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예: Falkenbach, et al., 2017; Smith, Gacono, Cunliffe, Kivisto, & Taylor, 2014; Verona & Vitale, 2006). 행동 표현형에 있어서 이러한 성별 차이는 공히 정신병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공감정확성에서 기대되는 성차가 정신병질 성향집단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지적 공감에 있어서 정신병리적 특성에 따른 효과가 성차에 따른 효과보다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넷째,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Brook과 Kosson(2013)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신병질 남성 재소자 집단과 비정신병질 남성 재소자 집단을 대상으로 공감정확성 실험을 실시한 후, 정신병질 남성 재소자 집단이 비정신병질 남성 재소자 집단보다 공감정확성이 저조함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Gesn과 Ickes(1999)가 제시한 표준자극 실험 패러다임을 변형시켜서, 실험참여자들에게 개방형 기술 대신 선택지를 통해 공감정확성-감정추론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왜 이와 같은 변형된 절차를 적용했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정컨대 비관여적이고 동기수준이 낮은 표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Brook과 Kosson(2013)의 연구에 적용된 선택지를 통한 보고방식이 개방형 기술을 통한 보고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남성 정신병질 성향집단이 남성 일반집단보다 공감정확성-감정추론 점수가 저조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추가분석해 보면 예상대로 남성 정신병질 성향집단이 남성 일반집단보다 공감정확성-감정추론 점수가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t(45)

=2.48,  $p < .05$ . 결국 이는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에서 선택지를 통한 보고의 활용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관여적이고 동기수준이 낮은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공감정확성 실험을 실시할 경우, 선택지를 통한 보고가 개방형 기술을 통한 보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택지 구성에 있어서의 변별 타당도 문제, 공감정확성 특유의 생태학적 타당도 유지에 대한 문제 등 개별 연구마다 적절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에 관한 최근의 분류학적 연구들은 교정 및 법의학 장면에서 노출된 정신병질 집단과 지역사회 표본집단 간 요인구조의 유사성을 증명해 오고 있다(예: Jones, Cauffman, Miller, & Mulvey, 2006; Neumann, Hare, & Newman, 2007; Vitacco, Neumann, & Jackson, 2005). 이는 정신병질 집단과 지역사회 표본집단이 연속선상에서 양적인 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예: Hare & Neumann, 2008; Marcus, John, & Edens, 2004; Walters, Duncan, & Mitchell-Perez, 2007) 최근 들어서는 접근과 측정에 있어서 제한이 많은 정신병질 집단의 대안으로써 지역사회 표본을 활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예: 윤황, 이영호, 2016; Mullins-Nelson, Salekin, & Leistico, 2006; Seara-Cardoso, Neumann, Roiser, McCrory, & Viding, 2012; Warren & Clabour, 2009). 따라서 정신병질 및 비정신병질 제조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Brook과 Kosson (2013)의 연구결과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은 정신병질 연구에서 있어서 지역사회 표본집단의 효용성을 간접 증명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그 기능의 우열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은 공감정확성 실험 패러다임을 통해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일반인들의 것보다 저조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둘째, 정신병질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교정 및 법의학 장면에서 연루된 남성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 결과들이 정신병질에 대한 일반화 가능한 설명이기보다는 남성 정신병질에 관한 설명일 수 있다. 이는 곧 정신병질의 성차 및 여성 정신병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의 성차와 함께 정신병질의 성별 효과를 다룸으로써 여성 정신병질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신병질 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상 접근과 측정이 어렵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커뮤니티 샘플을 이용하여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예: 윤황, 이영호, 2016; Seara-Cardoso et al., 2012; Stevens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정신병질 성향자들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는 한편, 실험집단으로 정신병질자들을 활용한 선행연구(Brook & Kosson, 2013)와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정신병질 연구에 있어서 표본집단 선발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생들로서, 실험집단은 정신병질 성향

자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가 실험집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대상은 정신병질자들로서, 정신병질 성향자들을 통한 실험집단 구성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본 연구의 실험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잠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정신병질자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실험 과정에서 실험참여자들은 답안을 자필로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평정 과정에서 글씨체 인식을 통한 성별 정보의 식별 단서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평정자들의 성역할에 따른 기대가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성역할에 따른 혼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정신병질은 하나의 동질집단이기보다는 복수의 이질적 집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Karpman, 1948;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Skeem, Johansson, Andershed, Kerr, & Loudon, 2007). 이에 따라 최근엔 정신병질을 1요인(일차성 정신병질)과 2요인(이차성 정신병질)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설명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병질이 동질집단임을 전제로 실험설계가 이루어진 바, 정신병질자들의 요 인구조에 따른 세분화된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 인구조를 기반으로 정신병질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한 보다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고선영, 이수정 (2004). 시설수용소년범의 공감

능력 차이: 범행위험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004-2, 117-127.

윤황, 이영호 (2016). 1, 2차성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Schwartz의 가치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5, 473-497.

이석호, 이영호 (2014). 우울한 사람들의 공감 정확도와 스스로 보고한 공감능력: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 17-33.

이수정, 공정식 (2007). 정신병질에 따른 국내 살인범들의 살인행위 특성 분석, 한국 경찰학회보, 13, 1-23.

조성호, 이희경 (2008). 공감과 마음이해: 종합적 접근. 인간연구, 15, 169-202.

Barnett, G., & Mann, R. E. (2013). Empathy deficits and sexual offending: A model of obstacles to em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8*, 228-239.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4-175.

Baron-Cohen, S., Jolliffe, T., Mortimore, C., & Robertson, M. (1997). Another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very high 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813-822.

Baron-Cohen, S., Knickmeyer, R. C., & Belmonte, M. K. (2005). Sex differences in the brain: Implications for explaining autism. *Science, 310*,



- 819-823.
- Baron-Cohen, S., Leslie, A. M., & Frith, U.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 37-46.
- Baron-Cohen, S., O'Riordan, M., Stone, V., Jones, R., & Plaisted, K., (1999). Recognition of Faux-pas by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and children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9, 407-418.
- Baron-Cohen, S., Richler, J., Bisarya, D., Gurunathan, N., & Wheelwright, S. (2003). The systemizing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f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358, 361-374.
- Baron-Cohen, S., Wheelwright, S., Skinner, R., Martin, J., & Clubley, E. (2001). The autism-spectrum quotient(AQ): Evidence from asperger syndrome/high-functioning autism, males and females, scientists and mathematicia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1, 5-17.
- Billing, M. (1991). *Ideology and opinions*. London: Sage.
- Blackburn, R. (1993).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Chichester: Wiley.
- Blair, R. J. R. (2007). Empathic disfunction in psychopathic individuals. In F. T. D. Farrow, & P. W. R.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ir, R. J. R., Budhani, S., Colledge, E., & Scott, S. K. (2004). Deafness to fear in boys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327-336.
- Blair, R. J. R., Colledge, E., Murray, L., & Mitchell, D. G. (2001). A selective impairment in the processing of sad and fearful expression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491-498.
- Blair, R. J. R., Sellars, C., Strickland, L., Clark, F., Williams, A., Smith, M., & Jones, L. (1996). Theory of mind in the psychopath.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7, 15-25.
- Book, A. S., & Quinsey, V. L. (2004). Psychopaths: Cheaters or warrior-hawk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33-45.
- Breithaupt, F. (2012). A three-person model of empathy. *Emotion Review*, 4, 84-91.
- Brook, M., & Kosson, D. S. (2013). Impaired cognitive empathy in criminal psychopathy: Evidence from a laboratory measure of empathic accura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 156-166.
- Buss, D. M. (2009). How can evolutionary psychology successfully expl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 359-366.
- Chismar, D. (1988). Empathy and sympathy: The important difference. *Journal of Value Inquiry*, 22, 257-266.
- Connellan, J., Baron-Cohen, S., Wheelwright, S., Batki, A., Ahluwalia, J. (2000). Sex differences in human neonatal social percep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113-118.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atalog of*

-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0.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olan, M., & Fullam, R. (2004). Theory of mind and mentalizing ability in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with and without psychopathy. *Psychological Medicine*, 34, 1093-1102.
- Dugosh, J. W. (1998). *Adult attachment style influences on the empathic accuracy of female dating part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 Dziobek, I., Fleck, S., Kalbe, E., Rogers, K., Hassenstab, J., Brand, M., Kessler, J., Woike, J. K., Wolf, O. T., & Convit, A. (2006). Introducing MASC: A movie for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6, 623-636.
- Eisenberg, N. (2000). *Empathy and sympathy*. In M. Lewis & J. M. J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 Lennon, R.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y Bulletin*, 94, 100-131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P. L. (1982). Empathy: a factor in antisocial behaviou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23-134.
- Falkenbach, D. M., Reinhard, E. E., & Larson, F. R. (2017). Theory based gender differences in psychopathy subtyp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5, 1-6.
- Farrington, D. P. (1998). Individual differences and offending. In M. Tonry (ed.), *The Handbook of Crime and Punish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lury, J., & Ickes, W. (2006).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ccuracy. In J. Ciarrochi, J. Forgas, & J. Mayer (eds),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A Scientific Inquiry*. New York: Psychology Press.
- Gerdes, K. E. (2011). Empathy, sympathy, and pity: 21st-century definitions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 230-241.
- Gesn, P. R., & Ickes, W. (1999). The development of meaning contexts for empathic accuracy: Channel and sequence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46-761.
- Glenn, A. L., Kurzban, R., & Raine, A. (2011). Evolutionary theory and psychopathy.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 371-380.
- Goldstein, T. R., & Winner, E. (2012). Enhancing empathy and theory of mind.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3, 19-37.
- Graham, T., & Ickes, W. (1997). When women's intuition isn't greater than men's.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 New York: Guilford Press.
- Håkansson, J., & Montgomery, H. (2003). Empathy as an interpersonal phenomen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267-284.
- Hall, J. A., & Mast, M. S. (2007). Sources of accuracy in the empathic accuracy paradigm. *Emotion*, 7, 438-446.

- Hanson, R. K. (2003). Empathy deficits of sexual offenders: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9*, 13-23.
- Hanson, R. K., & Scott, H. (1995). Assessing perspective-taking among sexual offenders, nonsexual criminals and non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7*, 259-277.
- Happé, F.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 129-154.
- Hare, R. D., & Neumann, C. S. (2008). Psychopathy as a clinical and empirical construc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217-246.
- Heavey, L., Phillips, W., Baron-Cohen, S., & Rutter, M. (2000). The Awkward Moments Test: A naturalistic measure of social understanding in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0*, 225-236.
- Hoffman, M. (1991). Empathy, soci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Vol. 1. Theor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ckes, W. (1993). Empathic accuracy. *Journal of Personality, 61*, 587-610.
- Ickes, W. (1997). *Empathic Accuracy*. New York: Guilford Press.
- Ickes, W., & Tooke, W. (1988). The observational method: studying the interactions of minds and bodies. In S. Duck, D. F. Hay, S. E. Hobfoll, W. Ickes, & B. Montgomery (Eds.),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Chichester: Wiley.
- Ickes, W., Bissonnette, V., Garcia, S., & Stinson, L. L. (1990). Implementing and using the dyadic interaction paradigm. In C. Hendrick, & M. S. Clark (eds.), *Research method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1)*.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 Ickes, W., Dugosh, J. W., Simpson, J. A., & Wilson, C. L. (2003). Suspicious minds: The motive to acquire relationship-threatening information. *Personal Relationships, 10*, 131-148.
- Ickes, W., Gesn, P. R., & Graham, T. (2000). Gender differences in empathic accuracy: Differential ability or differential motivation? *Personal Relationships, 7*, 95-109.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Empathy Scale. *Journal of Adolescence, 29*, 589-611.
- Jones, S., Cauffman, E., Miller, J. D., & Mulvey, E. (2006). Investigating different factor structure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findings. *Psychological Assessment, 18*, 33-48.
- Kaland, N., Moller-Nielsen, A., Callesen, K., Mortensen, E. L., Cottlieb, D., Smith, L.

- (2002). A new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3, 517-528.
- Karpman, B. (1948). The myth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04, 523-534.
- Keenan, T., & Ward, T. (2000). A theory of mind perspective on cognitive, affective and intimacy deficits in child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 49-60.
- Kerr, C. E. (2008). Dualism redux in recent neuroscience: "Theory of mind" and "Embodied simulation" hypotheses in light of historical debates about perception, cognition, and min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205-214.
- Klein, K. J. K., & Hodges, S. D. (2001). Gender differences, motivation, and empathic accuracy: When it pays to underst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720-730.
- Kohlberg, L. (1987).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and moral action. In L. Kohlberg (Ed., With collaborators), *Child Psychology and childhood education: A cognitive developmental view*. New York: Longman.
- Laurent, S. M., & Hodges, S. D. (2009). Gender roles and empathic accuracy: The role of communion in reading minds. *Sex Roles*, 60, 387-398.
- Lee, Z., & Salekin, R. T. (2010). Psychopathy in a noninstitutional sample: Differences in primary and secondary subtypes. *Personality Disorder: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 153-169.
-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151-158.
- Lipps, T. (1907). Das Wissen von fremden Idheon. In T. Lipps (Ed.),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Band 1). Leipzig: Engelmann.
-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nn, R. E., Webster, S. D., Wakeling, H. C., & Marshall, W. L. (2007). The measurement and influence of child sexual abuse supportive beliefs. *Psychology, Crime & Law*, 13, 443-458.
- Marangoni, C., Garcia, S., Ickes, W., & Teng, G. (1995). Empathic accuracy in a clinically relevant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54-869.
- Marcus, D. K., John, S. L., & Edens, J. F. (2004). A taxometric analysi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 626-635.
- Marshall, L. E., & Marshall, W. L. (2011). Empathy and antisocial behaviour.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2, 742-759.
- Marshall, W. L., Hudson, S. M., Jones, R., & Fernandez, Y. M. (1995). Empathy in sex offender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5, 99-113.
- Mast, M. S., & Ickes, W. (2007). Empathic accuracy: measurement and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s. In F. T. D. Farrow, & P. W. R.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t, M., Hall, J. A., & Ickes, W. (2006).

- Inferring power-related thoughts and feelings in others: A signal detection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1-10.
- Mehrabian, A., Young, A. L., & Sato, S. (1988). Emotional empathy and associated individual differences. *Current Psychology: Research & Reviews*, 7, 221-240.
- Miller, J. D., Watts, A., & Jones, S. E. (2011). Does psychopathy manifest divergent relations with components of its nomological network depending on gen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564-569.
-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nath, R. (2004).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2nd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 Mullins-Nelson, J. L., Salekin, R. T., & Leistico, A. M. R. (2006). Psychopathy,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in a community sampl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psychopathy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5, 133-149.
- Neumann, C. S., Hare, R. D., & Newman, J. P. (2007). The Superordinate natur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1, 102-107.
- Oakley, B. F. M., Brewer, R., Bird, G., & Catmur, C. (2016). Theory of mind is not theory of emotion: A cautionary note on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5, 818-823.
- Ounsted, C., & Taylor, D. (1972). Gender differences in beliefs and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54-263.
- Pechorro, P. S., Poiares, C. A., Vieira, R. X., Marôco, J., Nunes, C., & Jesus. (2014).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adjustment in female youths with high or low psychopathic trai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7, 619-627.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Norton.
- Potter, J., & Wetherell, M. (1987). *Discourse and social psychology: Beyond attitudes and behaviour*. London: Sage.
- Poy, R., Segarra, P., Esteller, A., López, R., & Moltó, J. (2014). FFM description of the triarchic conceptualization of psychopathy in men and women. *Psychological Assessment*, 26, 69-76.
- Richell, R. A., Mitchell, D. G. V., Newman, C., Leonard, A. Baron-Cohen, S., & Blair, R. J. R. (2003). Theory of mind and psychopathy: Can psychopathic individuals read the 'language of the eyes'? *Neuropsychologia*, 41, 523-526.
- Roeyers, H., Buysse, A., Ponnet, K., & Pichal, B. (2001). Advancing advanced mind-reading tests: Empathic accuracy in adults with a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2, 271-278.
- Ross, S. R., Moltó, J. R., Segarra, P., Pastor, M. C., & Montañés, S. (2007). Gray's model and psychopathy: BIS but not BAS differentiates primary from secondary psychopathy in non-institutionaliz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622-1655.
- Rueckert, L., & Naybar, N. (2008). Gender

- differences in empathy: The role of the right hemisphere. *Brain and Cognition*, 67, 162-167.
- Saxe, R., & Baron-Cohen, S. (2007). *Theory of mind: A special issue of social neuroscience*. New York: Psychology Press
- Seara-Cardoso, A., Neumann, C., Roiser, J., McCrory, E., & Viding, E. (2012). Investigating associations between empathy, morality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in the general pop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 67-71.
- Skeem, J., Johansson, P., Andershed, H., Kerr, M., & Louden, J. (2007). Two subtypes of psychopathic violent offenders that parallel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395-409.
- Skeem, J., Poythress, N., Edens, J., Lilienfeld, S., & Cale, E.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 Smith, J. M., Gacono, C. B., Cunliffe, T. B., Kivisto, A. J., & Taylor, E. E. (2014). Psychodynamics in the female psychopath: A PCL-R/Rorschach investigation. *Gender*, 1, 176-187.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J.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s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 201-211.
- Stevens, G. W., Deuling, J. K., & Armenakis, A. A. (2012). Successful psychopaths: Are they unethical decision-makers and wh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 139-149.
- Stinson, L., & Ickes, W. (1992). Empathic accuracy in the interactions of male friends versus male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87-797.
- Stone, V. E., Baron-Cohen, S., Calder, A., Keane, J., & Young, A. (2003). Acquired theory of mind impairments in individuals with bilateral amygdala lesions. *Neuropsychologia*, 41, 209-220.
- Verona, E., & Vitale, J. (2006). Psychopathy in women: Assessment, manifestations, and etiology. In C. J. Patrick (Ed.), *Handbook of psychopathy*. New York: Guilford Press.
- Vitacco, M. J., Neumann, C. S., & Jackson, R. L. (2005). Testing a four-factor model of psychopathy and its association with ethnicity, gender, intelligence, and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466-476.
- Walters, G. D., Duncan, S. A., & Mitchell-Perez, K. (2007). The latent structure of psychopathy: A taxometric investigati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a heterogeneous sample of male prison inmates. *Assessment*, 14, 270-278.
- Ward, T., & Keenan, T. (1999). Child molesters' implicit theo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821-838.
- Warren, G. C., & Clabour, J. (2009).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y and indirect aggression use in a noncriminal population. *Aggressive Behavior*, 35, 408-421.
- Watts, A. L., Donahue, K., Lilienfeld, S. O., & Latzman, R. D. (2017). Gender moderates psychopathic traits' relations with self-reported childhood maltreatment. *Personality and*

- Individual Differences*, 119, 175-180.
- Widom, C. S. (1976). Interpersonal and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path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614-623.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 103-128.
- Wispé, L.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14-321.
- Youn, H., & Lee, Y. H. (2016). The effect of strength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cues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683-696.
- 1차원고접수 : 2018. 04. 24.  
심사통과접수 : 2018. 06. 27.  
최종원고접수 : 2018. 06. 29.

## Cognitive Empathy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Focused on Empathic Accuracy and Gender Difference

Hwang Youn

Liberal Art School, Kyonggi University

There have been two arguments on psychopath's cognitive empathy: some researchers have said psychopaths are deficient in the ability of cognitive empathy, while the others have suggested they have superior ability of cognitive empathy.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psychopathy researches have dealt with male forensic samples, little is known about gender difference of psychopathy and also about female psychopathy.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psychopaths' cognitive empathy ability and characteristic gender difference which they have on it. In order to do so, college students are asked to fill out the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Among the participants, a group of 46 students with psychopathic tendency and normal control of 54 students are selected. Both groups' empathic accuracies are compared with the help of Ickes' examination paradig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ormal control group demonstrated higher empathic accuracy than the psychopathic tendency group did. Second, the female group also demonstrated higher empathic accuracy than the male group did. Thir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sychopathic tendency and gender were identifi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oposed.

*Key words* : cognitive empathy, empathy, empathic accuracy, psychopathy, female psychopathy